

중국 대지진 참사

구조대원 200명도 진흙더미 매몰

전염병 환자 늘고 언색湖 3곳 범람

지진 피해 지역인 중국 남서부에서 대규모 흄사태가 발생, 구조작업을 벌이던 200명 이상이 매몰된데 이어 쓰촨성 일대에서는 전염병이 퍼지고 지진으로 생겨난 호수가 붕괴하는 등 대지진의 여파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쓰촨성에서 지진으로 인해 끊어진 도로를 복원하고 있던 구조대원 200여명이 갑자기 들어닥친 진흙더미에 3일동안 매몰돼있는 상태라고 교통부의 한 관리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 관리자는 구조대원들과 함께 2대의 건설 장비와 6대의 차량도 진흙에 파묻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쓰촨성 위생국은 지난 18일 오후 6시 현재 전염병인 '가스 괴저병' 환자 58명이 성도인 청두의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신경보(新京報)가 19일 보도했다. 즉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사율이 높은 가스 괴저병 환자는 화시병원과 쓰촨성인민병원 등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밖에 청두 군구 총병원 등 다른 병원의 환자 중에도 유사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이 전염병 환자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화시병원 전염병 센터의 탐종 주임은 가스 괴저병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환자 5명이 지난 14일 이 병원을 처음 찾은 이후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히고, 검사 결과 지진 피해 지역에서 대피해온 이들은 모두 가스 괴저병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



19일 중국 텐진(天津)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조례중 쓰촨성 지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눈물짓고 있다. 중국은 이날부터 3만여명의 강진 희생자들에 대한 사흘간의 전국 애도기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쓰촨성 원천을 감탄한 대지진으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모두 21개의 자연호수가 생겼으며 이 가운데 3개가 범람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문들은 이날 쓰촨성 북성장이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이들 자연호수가 아직 심각한 위험은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색호'라고 불리는 이 자연호수는 침식이나 용해 등으로 쉽게 무너져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

쓰촨성 일대 21개 언색호 가운데 18일 아침 침환현 언색호 3개가 독이 터지면서 범람했으나 아직까지 커다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中 전역 애도 물결 3일간 애도기간 선포

중국 19일부터 지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기간에 들어갔다.

중국 국무원은 쓰촨성을 감탄한 대지진으로 희생된 인민들을 애도하기 위해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동안을 국가 차원의 애도기간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19일 오전 4시58분(현지 시각) 베이징 텐안문(天安門)광장에서 조기 계양식이 거행된 것을 시작으로 중국 전국의 공공기관 건물과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중국공관에 조기가 내걸린다. 또 중국 국민들은 이

번 애도기간에 지진이 발생한 시간인 매일 오후 2시28분부터 3분동안 사이렌 소리와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며 자동차와 기차, 선박들은 경적을 울려야 한다.

특히 앞으로 사흘 동안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는 주식 거래가 3분간 중지되고 공공장소에서 오락활동도 전면 중단된다.

중국 국무원 산하 지진재난구조지휘부는 18일 오후 2시 현재 사망자는 쓰촨성 3만1천978명 등 모두 3만2천4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매일 오후 2시28분부터 3분동안 사이렌 소리와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며 자동차와 기차, 선박들은 경적을 울려야 한다.

특히 앞으로 사흘 동안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는 주식 거래가 3분간 중지되고 공공장소에서 오락활동도 전면 중단된다.

중국 국무원 산하 지진재난구조지휘부는 18일 오후 2시 현재 사망자는 쓰촨성 3만1천978명 등 모두 3만2천476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연방보안국 개입 우주인 교체”

고산씨 부적절한 발언 논란

항우연 발표와 배치 “징계등 적절한 조치”

한국 최초 우주인으로 선발됐던 예비우주인 고산(31)씨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우주인 교체와 관련, “가까린 우주인훈련센터측의 양해하에 우주선 조종 관련 공부를 했는데 연방보안국(FSB)이 문제를 삼자 갑작스럽게 강경한 태도로 교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탐승우주인으로 교육을 계속 받아왔고 러시아어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 가가린센터는

탐승우주인을 그대로 유지하려 했지만 정보기관이 개입하니 어려웠다는 말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훈련규정 위반 문제로 가가린훈련센터측이 우주인 교체를 요구해와 공식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탐승우주인을 교체했다는 정부와 항우연측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우주인 개발사업에 러시아측 정보기관이 개입했던 것처럼 언급함으로써 자칫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고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방보안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

그러나 거액의 국가 세금을 지원받아 한국 첫 우주인으로 선발됐음에도 규정위반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탐승우주인에서 교체되면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과실을 일으킨 데 대해 자숙하지 않고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항우연 백승철 원장은 “우주인 교체 과정에 어떠한 위압도 없었다”며 “그의 발언 내용을 면밀히 조사한 뒤 사실 여부를 따져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바마, 본선 필승전략 착수

선거캠프 “경선 끝났다”... ‘본선 모드’ 전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되는 Barack Obama 상원의원이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경선이 종결되기도 전에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를 겨냥한 본선 필승전략에 착수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오바마는 오는 20일(현지시각) 캔터키주와 오리건주에서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오바마 선거캠프는 “이미 경선은 끝났다”며 몇 주 전부터 오는 11월4일 실시되는 ‘본선 모드’로 전환했다는 것. 오바마가 이처럼 발빠르게 본선체제로 전환한 것은 공화당에 비해 본선 준비가 늦어진 데다가 과거 선거사례를 볼 때 후보지명을 일찍 받은 후보일

수록 본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 경선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는 20일 프라이머리를 앞두고도 캔터키주나 오리건주에서 선거유세를 벌이지 않고 이번 주에 지난 1월3일 대통령 선거전의 첫막이 올랐던 아이오와주와 힐러리에 게 패배했던 플로리다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오바마는 본선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격전지’에 이미 대책담을 보내 6개월간 수백만명의 민주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매케인을 겨냥한 선거광고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바마는 자신의 취약계층이

자 본선 승리를 위해 중요한 유권자층인 백인 노동자와 히스패닉, 가톨릭 및 유대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공략에 나섰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오바마는 경험부족과 엘리트주의, 인종문제, ‘좌파 성향’ 등 공화당 진영으로부터 예상되는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논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필요한 예극심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섬조기’ 배지도 다시 착용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정치환경으로 볼 때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라크 전쟁, 경제난, 부시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 등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꼭내영교육학

개강 7월 4일

☎ 529-0090

자격증은 취득하고 싶은가?

☎ 023144-0075-8

보람상조와 함께 할 새가족을 모십니다.

특장점

- 1. 보람상조와 함께 할 새가족을 모십니다.
- 2. 보람상조와 함께 할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 남광주 지점 ☎010-9566-8114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1.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2.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3.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4.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010-9566-8114